

서울시, 시민들 클럽 폐쇄 목살... 감염 더 키워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쇼크

클럽 운영 중단 등 대책 촉구에도 강제적 조치 어렵다 소극적 태도 시 "강제폐쇄 불가... 재산권 문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시민들이 유흥업소를 폐쇄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서울시가 민원을 묵살해 감염병이 견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20명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지역의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총 64명으로, 이는 시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유흥업소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견한



용산구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메이드'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시

시민들은 두 달 전부터 응답소, 민주주의 서울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클럽 운영 중단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1일 시민 A씨는 응답소 '원순씨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강남이나 홍대 근처 클럽들은 영업을 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젊은이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고 무증상자의 감염도 염려되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폐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강제

폐쇄가 불가하고 재산권 문제로 영업 자체를 강제하기가 어려워 방역과 같은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구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약 한 달 전인 4월 5일 유모 씨는 "클럽, 펍, 감성주점 등 위험시설 단속이 시급하다"며 "이런 시설은 수백명까지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 한명만 발생하면 수도권에서 다시 (감염병이)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학생이 수도권에 들어와 있는데 주말 밤 클럽의 유흥을 뿌리치기 힘들어한다"면서 "클럽을 댄스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다중이용시설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너무 위험하므로 늘 해운 권고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시는 클럽 등에 대해 영업장 폐쇄가 가능한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서

울시 차원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지난 8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발병이 터졌고 시는 9일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서울 소재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가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지만 3~7일 0명을 유지해왔던 서울 발생 코로나 19 신규 환자는 8일 11명, 9일 21명, 10일 20명, 11일 27명, 12일 20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같은 건물(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에이스하이엔드타워 7차)에서 근무하는 한 시민은 "11일 아침 출근 후 방송으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정상 근무를 시켰다"며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후 건물을 폐쇄하려나 본데 덕분에 오늘 하루 별별 떨면서 일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이태원 클럽 근처 기지국 접속 1만905명 명단 확보

검사 요청 메시지 발송...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코로나19)

클럽 등서 일정시간 머문 인원 파악 "인권침해 예방 위한 핫라인 개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의 전체 명단을 확보해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과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어제와 오늘에 걸쳐 기지국 접속자 명단 전체를 확보했다"며 "기지국 접속자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오후에 한 번 더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은 4월 24일~5월 6일 사이 매일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이태원 클럽·주점 5곳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한 인원을 파악한 숫자다. 업



박원순 시장이 1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소 5곳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지국 접속 반경은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 시장은 "본인 행동은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라며 "(기지국 접속자 명단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클럽 안이나 주변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다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박 시장은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이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인근에 계셨던 분들은 신변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조속히 자발적인 검체 검사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 격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이용은 업소 5곳 내에서 이뤄진 것만 추렸다.

이날 시는 코로나 진단검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성 소수자들이 많이 관여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 시장은 "인권단체와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할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방역만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구로구, 코로나 극복 바자회 개최

구로구가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밸리 나눔바자'를 진행해 시민들이 물건을 둘러보고 있다. 나눔 바자에는 G밸리 입주기업 13개사와 밀알복지재단 등이 참여한다. 참여 업체들이 기부한 판매 물품은 구강세정기, 여성리류, 미용용품, 건강제품, 게임용 마우스, 이불, 봉제인형 등 1300여점이다. /뉴스시

해방촌 등 '주거재생 시범사업' 연내 마무리

서울시 주거재생 사업 82.3% 완료

서울시는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곳의 주거재생 선도·시범사업 192건 중 158건(82.3%)을 완료했고 나머지를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선도사업 지역은 종로구 창신·송인동, 용산구 해방촌, 구로구 가리봉동이

며, 시범사업은 성동구 성수동, 서대문구 신촌동, 성북구 장위동, 강동구 암사동, 동작구 상도동이다.

서울시는 마중물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 재생의 중심이 되는 '앵커시설' 8개 지역 20개 건립, 도시재생기업(CRC) 4개 지역 8개 선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발대식

LGU+ 등 7개 기업·학계 참여 시범 운행 넘어 실제 운행 시발점

서울시는 12일 삼양 문화광장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발대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언맨드솔루션, 콘트롤릭스, 도구공간, SML, 오토모스, 스프링클라우드 등 7개 기업과 연세대 등 학계가 발대식에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6월 상암에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9월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 운행 중이다.

이번 발대식은 일시적인 시범 운행을 넘어 실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하는 시발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버스 3대, 승용차 4대, 배달 로봇 3대를 투입해 통제되지 않는 복잡한 실제 도로에서 실증한다.

자율주행차는 면허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호출하면 와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비대면 차량 공유, 차량 스스로 주차장과 빈 주차면을 찾아 주차하는 대리주차,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지역으로도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시는 자율주행 차량에 신호등 변경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울시

시점 정보를 0.1초 단위로 잔여 시간까지 제공해 신호등을 인식하는 비전 센서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일반인도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다. 시는 내달 8일부터 서울교통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셔틀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핀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3억 우대 보증

서울시-신보, 자금 지원 협력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핀테크 스타트업 자금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스타트업에 최대 3억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우대 보증으로 서울핀테크랩 입

주 기업들이 최소 66억원 이상의 금융 지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계산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매출액이나 자기자본 한도와 관계없이 3억원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100% 전액 보증 및 0.5%의 고정 보증료율 등 혜택도 따라온다. 신보의 보증료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심사를 거쳐 0.5~1.0% 수준에서 변동한다. /김현정 기자